

홀치기염색

홀치기를 일본에서는 시보리라고 하며, 유송오해(有松鳴海)라고도 쓰고, 아리마쓰나루미라고 읽는다. 이것은 지명임과 더불어 홀치기를 의미한다. 유송(有松)과 오해(鳴海)는 지역은 따로 따로 이지만 모두 나고야시 동부의 교외에 있다.

홀치기는 천을 실로 묶어서 염액(염료를 녹인 액) 속에 적셔서 염색하여 실로 묶은 부분(염액이 천에 스며들지 않는 부분)에 모양을 나타내는 기법으로 모양을 표현하는 묶는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홀치기에서 사용되는 묶는 방법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380년의 역사를 가진 홀치기의 산지 유송(有松)에서는 유송오해(有松鳴海) 그림회관 전시실에서 홀치기의 다양한 표현을 볼 수가 있다. 유송(有松)에서는 홀치기염색이라고 하지 않고, Shaped resist라고 한다. 실로 묶음으로 인해 천이 입체화하고 염색마무리 후에도 그러한 형상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패션에서는 가치가 있다. 홀치기염색(tie dyeing이라고도 한다)은 평평한 천 위에 홀치기 염색의 모양이 염색되기 때문이다(야말화지, 野末和志).

홀치기염색(veriegation)은 무늬염색법의 하나로서 염색하기 전 피염물(실 또는 직물)의 일부를 실로 견고하게 묶거나 감아서 염액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염(防染)한 후, 침염법(浸染法)으로 염색하고, 감은 실을 풀면 묶은 모양의 무늬가 나타나게 되는 염색법이다. 이 방법을 반복하면 색들이 서로 겹쳐 희미하게 얼룩진 것과 같은 여러 모양의 색조(色調)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나타내는 용어로 영어의 tie-dyeing, 인도어의 bandhana, 말레이어의 plangi 또는 tritik, 일본어의 시보리조메(絞染) 등이 있다.

실 홀치기 외에 판(板)을 쓰거나 관·봉·상자 등을 써서 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도 있다. 일반적인 방법은 천에 밑그림을 그린 후 밑그림에 따라 여러 방법의 흘치기를 한다. 흘치기 실은 보통 마사(麻絲)·면사 등 튼튼한 실이 쓰이며, 염색하는 방법은 보통의 염색법과 같이 섬유에 따라서 적당한 염료를 선정하여 바탕염색보다 짙게 하여 단시간에 염색을 끝내는 것이 방염한 부분에 염료가 침투해 들어가지 않아서 좋다. 또 2~3번 서로 다른 염액의 색을 바꾸어 여러 염색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마무리는 충분히 말려서 실을 풀고 묽은 부분은 완전히 당겨서 펴지도록 한다.